

# 프랑스 사회당(SFIO) 전국당대회(1905-1914)

— 연구의 기초로 ‘연맹’에 관심을 두고\* —

## 노 서 경

- I. 서론: 프랑스 사회당 전국대회의 정치사적 의미
- II. 연맹 구조의 당과 당대회
- III. 선전·선거·연맹·의원
- IV. 의회 그룹에 대한 연맹의 우선권 쟁점
- V. 결어

### 국문초록

통합 프랑스 사회당은 1905년 SFIO(국제노동자협회 프랑스 지부)라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창당한 후 연차 전국당대회 속기록을 발간해왔다. 전국당대회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던 사회주의 정치 세력에게 새로운 현상은 전혀 아니었으나 이제 사회당은 당헌으로 당을 지도하는 것은 전국당대회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전국당대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당대회 속기록이 그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에 연유했다. 그러한 당대회 연구의 기초로 우리는 1차 대전 이전의 당 창건기 10년 동안 중앙 권위와 계서제에 반대하여 개체의 자유와 자율성을 주장하는 연맹에 주목했다. 이 글이 제기한 문제는 세 가지이다. 연맹과 당 사이의 현실, 약소한 당 재정 속에서 특히 선거철을 맞아 벌이는 선전활동, 그리고 주로 노동자와 민중층으로 구성된 연맹원들과 선출직인 의회 사회주의그룹 사이의 갈등 관계이다. 당대회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의식 끝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 난점에도 불구하고 당대회는 자율의 정신과 권능을 당의 토양에 뿌리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당의 건설을 위해서였다.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6546).

## I. 서론: 프랑스 사회당 전국대회 정치사적 의미<sup>1)</sup>

마침내 1905년 4월 창당한 프랑스 사회당(SFIO)의 당헌 당규(Réglement du Parti)에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sup>2)</sup> <당헌> 1조, 2조, 3조에 당은 자본주의 사회를 집산주의(collectivisme) 또는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하며<sup>3)</sup> 이를 준수하는 이들만이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후 총 VIII부, 63조에 당의 직제와 대표직에 말이 없었다.<sup>4)</sup> 다시 말해 당수, 당 대표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소수 지도층이 당 운영을 책임진다는 문구도 배제되었다. 다만 당을 지도(direction)하는 것은 당대회(Congrès)라고 명시하여 비인격체에 당의 방향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sup>5)</sup> 하지만 프랑스 사회당에 당 대표가 없는 것은 사회주의 특유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우파든 좌파든

- 1) 당은 프랑스 사회주의 정당들의 통합 문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2차 인터내셔널(The Second International 국제노동자협회)의 영향으로 노동자인터내셔널프랑스지부(Section Française d'Internationale Ouvrière)로 불렸지만 당헌 2조에 의해 사회당이 먼저 오고 SFIO이 병기되었다. 당대회의 명칭 “Congrès national du Parti”는 우리나라 정당도, 전국당대회도 쓰고 있고 또한 프랑스에서 전국이라는 지리적 표현이 중요했던 점을 살리고자 전국당대회로 한다.
- 2) *1<sup>er</sup> Congrès national (Congrès d'Unité) tenu à Paris, les 23, 24 et 25 Avril 1905, Compte rendu analytique(Paris: Au siège du Conseil national, 1905), pp. 23-32.* (이하 반복되는 당대회 표기는 개최 도시와 연도 표시로 줄임). 당헌은 1911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한편 프랑스 사회당의 험난한 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고전적 문헌으로, Léon Jacques, *Les Partis politiques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Thèse pour le doctorat(Paris: Librairie Recueil Sirey, 1912), pp. 266-316.*
- 3) 자본주의의 소유 집중에 반대하는 사상이자 개념이 집산주의는 1880년대와 1890년대에 혁명파, 개혁파, 학생그룹(Groupe d'étudiant socialiste révolutionnaire internationaliste) 모두 흔히 쓰고 있던 말이다. 한편 이 시기의 ‘공산주의(communisme)’는 1917년 이후와 달리, 사회주의 개념 중에서 특히 소유와 경제를 의미했다.
- 4) 영국 노동당의 경우는 당대표(Party leader)가 존재했다.
- 5) *Encyclopédie socialiste syndicale et coopérativ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publiée sous la direction technique de Compère-Morel, Le Parti socialiste en France par Paul Louis(Aristide Quillet, 1912), pp. 133-142.*

개인주의적 소그룹으로 형성된 프랑스적인 정치 성향에 속하여, 이념은 달라도 사는 방식은 엇비슷한 정치의 속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1871년 코뮌(Commune)이 진압당한 후 분열을 거듭했던 프랑스 사회주의가 일방적이며 수직적인 권위는 거부하는 선에서 서로 만날 수 있었다는 정치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한다.<sup>6)</sup>

어떻든 연차 당대회가 당 자체라 명시하였으니 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délégué)의 자격이 문제였는데 이는 도 연맹(Fédération)의 위임을 받은 당원에 한했고 다시 이들에게 위임을 부여하는 권한은 당비납부 당원에 한했다.<sup>7)</sup> 하나의 연맹에서 몇 명의 대의원<sup>8)</sup> 대회에 참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당원 100명이 모이면 위임장(mandat) 1장, 대의원 1장의 비율로 대의원 수를 정했다.<sup>9)</sup> 정작 각 연맹에서 누구를 대회에 보낼 것인가는 연맹위원회가 주관하여 연초에 열리는 각 연맹 대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명하기로 되었다. 그렇게 13조에서 19조에 명기된 당대회의 성격과 절차 및 개최 규약이 그대로 지켜지고 대회의 연혁이 쌓이자 당원들은 대회에 점점 정성을 기울였다. 창당 후 세 번째인 1906년 리모주 대회에서 이미 정비되었지만 그 후 해가 갈수록 확충된 대회 속기록이 그러한 증거이다.

6) 브루스(Paul Brousse) 지도의 당(FTSF)는 제6차 전국대회에서 당규 11조에 이미 당대회를 그처럼 규정했다. *Fédération des Travailleurs Socialistes de France, Compte rendu du 7<sup>e</sup> Congrès national tenu à Paris du 30 Septembre au 7 Octobre 1883*, publié par Le Comité national(Paris, 1883), p. 29.

7) 물론 Fédéralisme은 하나의 국가 내 조직, 또는 국가 이상의 조직으로서 연방, 연합의 의미를 갖는다. M. Bakounine, *Fédéralisme, socialisme, antithéologisme*(Lausanne: Éditions l'Âge d'Homme, 1971), pp.42-62. 여기에 연맹/연방의 수평적 사상을 노동자들 사이에 구현한 것은 1차 인터내셔널(AIT)일 것이다. Oscar Testut, *Livre bleu de l'Internationale, Rapports et documents officiels lus aux Congrès de Lausanne, Bruxelles et Bade par le Conseil général de Londres et les délégués de toutes les sections de L'Internationale*(Paris: E. Lachaud, 1871).

8) 연맹을 대표하여(représentant) 대회에 참석한 연맹-당원은 주로 대의원(délégué)으로 지칭되었다.

9) 101-300명은 2장, 301-500명은 3장, 501-700명은 4장으로, 200명 단위로 배가되었다.

이 같은 상황과 이유만으로도 당대회는 정치사와 사회주의 어느 면으로나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 주제였을 것 같다. 사실 로베르 브레시의 대회 자료집은 1871년에서 1921년까지 50년간 프랑스 노동운동 조직의 대회를 거의 총망라하고 각 시기의 대회에 해설을 붙였다.<sup>10)</sup> 그러나 자료집 아닌 연구 논문이나 단행본이 잘 보이지 않는 데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어느 당파나 노동조직이나 쉬지 않고 대회를 열었으니 대회장의 그 수많은 정치언어는 범상해지고 그만 탐구의 가치를 잃었을 것 같다. 당대회의 기나긴 생명력에 비하면 이런 사정은 연구에 회의를 주기도 하지만 온전하게 보존된 대회 속기록은 너무나 소중한 사료이다.<sup>11)</sup> 당은 재정이 어려워 속기록 완간이 부담스러웠건만 대회 속기록에 애착이 많아 1906년 리모주 대회부터 완간을 고집했으며 한 해 속기록을 3.25프랑으로 당 서점에서 판매했다. 사회주의자들의 대회는 1905년 이전에 이미 무성했어도 요약본 아닌 전체 속기록은 1879년 마르세유 사회주의노동자 대회 후에는 발간하기 힘들었다.<sup>12)</sup>

하지만 분열에 따른 경쟁으로 생테티엔, 샤텔르로, 코망트리, 몽뤼송, 랭스, 보르도, 로안 등 각 공업 도시에서 수없이 열린 사회주의 대회들을 당대인들이 지나치지는 않았다. 1895년 창설되어 비상한 열의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 문헌을 수집하고 있던 파리 사회박물관(Musée social)

10) 이 자료집에는 노동상담소연맹(Fédération des Bourses du Travail), 노동총연맹(CGТ) 대회가 모두 포함되었다. Robert Brécy, *Le mouvement syndical en France 1871-1921, essai bibliographique*(Ecole des Hautes Études, 1963; Gif-sur-Yvette: Éditions du Signe, 1982). 별도의 국제노동자대회와 프랑스의 생디카 대회 및 도표는 pp. 27-124, 126-127.

11) 당대회의 역사적 지속성에 대한 토론은 Alain Bergounioux, Frédéric Sawicki, Pierre Serne, "L'objet "CONGRÈS socialiste" en débat", *Recherche socialiste*, n° 12(septembre 2000). 그 전 1899년 12월 파리 자피 대회 기록으로는 속기록 전편과 노동상담소 창설자 페르낭 펠루티에(Fernand Pelloutier)의 요약본 두 편이 나왔다. Jack Alden Clarke, "French socialist congresses, 1876-1914", *Journal of Modern History*, XXXI(1959), pp. 124-125.

12) *Séances du Congrès ouvrier socialiste de France, 3<sup>e</sup> session, tenue à Marseille du 20 au 31 octobre 1879*(Marseille: Imprimerie générale J. Doucet, 1879).

이 우선 이에 주목했다. 이 기관의 언론인 레옹 드 세약은 각종 대회에 참석한 현장 감각으로 1876년에서 1898년 사이의 대회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sup>13)</sup> 비슷한 시기에 젊은 사회당원 레옹 블룸 역시 당대회의 가치를 의식하고 그동안의 사회주의 대회를 두 권에 나누어 해설했다.<sup>14)</sup> 1959년 영어권의 사회주의 당대회 목록 작성 후<sup>15)</sup> 다시 2000년에는 파리의 사회당 연구기관인 루르스(L'OURS: L'Office Universitaire de Recherche Socialiste)에서 1905년 이후 1997년까지 71번의 사회당 대회를 간단한 일람표로 만들었다.<sup>16)</sup> 이 글은 그 같은 사회당 대회 100년사 중에서 1914년 이전 즉 아직 당의 앞날이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도 당을 일으켜 세우려는 젊은 열기가 뿔뿔이 나오던 창건기 10년에 관심이 있다.<sup>17)</sup> 하지만 10년간 11차례의 당대회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며 1906년과 1909년에서 1914년까지 대회를 주로 보려 한다.<sup>18)</sup>

그러나 수없는 말을 쏟아낸 당대회를 그려내려면 사회 언어(discours social) 분야를 개척한 마르크 앙주노가 가리키듯이 적어도 기본적인 언어 분석의 소양이 필수적일 것이다.<sup>19)</sup> 그런 조건이 결핍된 때는

13) Léon de Seilhac, *Les Congrès Ouvriers en France 1876-1897*, "Bibliothèque du Musée social"(Armand Colin, 1899). 1895년 CGT 창립대회에 노동자 대의원 아닌 어떤 외부인도 입장하지 못했으나 세일락은 대회 참관이 허용되었다.

14) Léon Blum, *Les Congrès ouvriers et socialistes français, t. I. 1876-1895, t. II. 1886-1900*(Bellois, 1901).

15) Clarke, "French socialist congresses", pp. 125-129.

16) Les congrès socialistes: 1905-2000, Dossier, *Recherche socialiste*, n°12(2000), pp. 3-109. L'OURS는 1969년 사회당 지도자 기몰레(Guy Mollet)에 의해 창설된 후 20세기 후반과 전간기의 문헌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17) Marion Fontaine, "La formation du parti socialiste unifié 1905-1914", *Cahiers Jaurès*, N° 187-188(janvier-juin 2008), Les débuts de la SFIO, p. 7.

18) 1905년의 두 번 대회, 1907년 낭시 대회, 1908년의 툴루즈 대회는 제외한다. 낭시 대회는 바로 전 슈투트가르트 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이어 열리면서 반전 문제에 집중했다. 1908년 툴루즈 대회는 개혁과 혁명 논쟁으로 채워졌으며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노서경, 「1908년 툴루즈 프랑스 사회당(S.F.I.O.)대회의 의미」, 『서양사연구』 25집(2000, 2), 37-64쪽).

19) Marc Angenot, *L'ennemi du peuple: représentation du bourgeois dans le discours*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글이 고안한 것은 당대회의 기본 구조였던 연맹을 렌즈로 대회를 보자는 것이다.<sup>20)</sup> 연맹은 물론 사회당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급진당 조직도 모두 연맹에 기반을 두었다.<sup>21)</sup> 그러니 이 글은 연맹을 기초로 프랑스 사회당의 구조와 연관 조직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싶은 것은 방방곡곡 연맹에서 모여든 대의원들이 가득 앉은 당대회의 목소리, 대회 풍경일 뿐이다. 다만 정치조직이 살아가는 데는 의견과 정서의 충돌과 교류가 중요하다는 브로의 관점이 반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다.<sup>22)</sup>

## II. 연맹 구조의 당과 당대회

1914년 1월 25일 북부 아미앵에서 열린 제11차 전국당대회는 전쟁의 도래에 대비했던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제 한 단원이 끝난다는 듯 당의 그간 성장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대회에 보고했다. 10년 전 신생정당 출범에 비해 당은 분명 부쩍 컸다. 전체 당원이 3만 5,000명에서 9만 3,000명으로 늘었다. 유권자는 1천 명 당 3.75, 당원

---

*socialiste, 1830-1917*(Montréal: McGill, Discours social/Social discourse, 2001); Angenot et Claire Oger, “Observer et décrire comment s’échangent les raisons, c’est la première tâche de l’analyste du discours”, *Mots. Les langages du politique*, n° 110(2016/1).

- 20) 하지만 지역 노조와 산별 노조의 전국적 결성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집행되지 않았고 연맹 단위로 움직였다. 광산, 직물, 서책, 철도, 벌목, 그리고 건축과 금속 거의 어느 직종이나 같은 방식과 절차를 밟았다. *Fédération nationale des mineurs, Congrès national des mineurs de France, tenu à Carmaux, les 20-24 mai 1903, Fédération nationale des Bûcherons et Travailleurs Similaires de France et des Coloniales, Congrès, tenu au Salon des Charmilles à Auxerre(Yonne) le 4 Septembre, 1904.* 사회주의 당파는 이들 일선 노동조직과 떨어지지 않았으며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Paul Louis, *Histoire du socialisme français de la révolution à nos jours (1789-1936)*(Marcel Rivière, 1936), p. 251.
- 21) Armand Charpentier, *Le Parti radical et radical-socialiste à travers ses congrès: 1901-1911*(Paris: V. Giard et E. Brière, 1913).
- 22) Philippe Braud, “Introduction”, in *L’émotion en politique: problèmes d’analyse*(Presses de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1996).

은 프랑스 산업 노동자를 200만 명(여성을 포함)으로 보아 1천 대 68.1이었다.<sup>23)</sup> 강대한 독일 사민당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했지만 당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게드, 라파르그, 바이양, 조레스, 상바, 에르베, 콩페르모렐, 토마<sup>24)</sup> 같은 지식인 지도자들만이 분투하지 않았다. 평원과 해안, 산악과 계곡의 프랑스 전역에 퍼진 각 도 연맹 당원들의 참여와 노력, 비판이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들 당원은 많은 경우 일선 노동자들이었다.<sup>25)</sup>

물론 당은 중심이 있어야 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프랑스 정치에서도 중앙 기구와 권위는 필요했다. 그러나 중앙에 대해 개인과 자유와 자치/자율(autonomie)을 중시하는 연맹의 속성은 분명히 프랑스 사회당의 특징이었으며 당대회는 그러한 증언 같았다. 의장단 선임, 대회 전체의 발언자 선정이 연맹에서부터 출발했다.<sup>26)</sup> 당과 당대회를 연계하는 기구는 3-5명의 소수로 구성된 전국위원회(Conseil national)일 뿐이었고 상임운영위(CAP)는 그 아래 집행기구였다.<sup>27)</sup> 그러나 대

23) *11<sup>e</sup> Congrès national du parti tenu à Amiens, 25-28 janvier, 1914*, pp. 19-20.

24) Louis Dubreuilh(1862-1924)는 보르도 출신의 신문기자로 출발, 게드주의 당에 들어온 후 다시 1905년 창당부터 1918년까지 사회당의 비서직을 떠나지 않았다. Marcel Sembat(1862-1922)는 법학박사이며 변호사, 블랑키 주의자로 게드주의 당에 가담하고 사회주의 신문 『라 페티트 레퓌블리크』(*La Petite République*)의 편집국장이었으며 통합사회당에서 활약했다. Albert Thomas(1878-1932)는 제빵사의 아들로 경제와 노동문제에 해박했던 주요한 사회당원, 1차 대전 동안 전지 정부에서 군수물자 생산과 노동 문제를 담당한다.

25) *Encyclopédie socialiste, La France socialiste*, par Hubert Roger, *Les Fédérations*, t. 1, 2, 3(Aristide Quillet, 1921).

26) “그때까지는 국가들 모임의 사법적 표현으로 인식되던 fédéralisme을 모든 인간관계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 이론, 위대한 사회철학으로 만든 것은 프루동이다.” Bernard Voyenne, “Le fédéralisme de Proudhon”, *L’actualité de Proudhon*, Colloque de novembre 1965(Éditions de l’institut de sociologie,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1967), p. 143. 그런데 프루동 자신이 연방/연합/연맹주의(fédéralisme)의 요체는 권위에 대립하여 자유와 계서를 거부하는 자율로 표명했다. P.-J. Proudhon, *Du principe fédératif et de la nécessité de reconstituer le parti de la révolution*(Paris: E. Dentu, 1863), pp. 68-70.

27) Conseil는 평의회이지만 보다 무난하게 위원회로 줄여서 전국위로 쓴다. 또한 CAP(Comité d’Administration Permanente)는 국내 정당의 명칭도 참고하여 상

회를 직접 주재한 것은 해마다 전국위에서 개최지를 배려하여 선임한 대회 집행국(Bureau)이었다. 집행국은 대회 개막 후 곧 대의원 동의로 선출되고 의장 1인과 배석 2인으로 구성되는데 의장은 오전, 오후 회의(Séances)에 교체되었다. 대회에서 다룰 의제는 미리 연맹별로 접수하여 전국위에서 선정했으나 발언의 순서와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sup>28)</sup> 연맹이 수평적이라는 것은 우선 당대회의 장소 선정으로 드러났다. 당은 1905년 4월 파리 글로브 회관의 창당 대회 후 그해 10월 노동자들이 시위 중 살해당한 샬롱쉬르손을 대회 장소로 선정한 다음 10년 동안 파리 아닌 지방을 계속 순회했다.<sup>29)</sup> 대회는 시위 노동자들이 유혈 탄압을 당한 도자기 공업지 리모주,<sup>30)</sup> 이듬해에는 동부 낭시, 그 다음 남부 툴루즈, 다시 거기서 가깝지만 광산 도시인 생테티엔,<sup>31)</sup> 그 다음 1910년에는 급진파의 님(Nîmes)을 돌아<sup>32)</sup> 유서 깊은 북부 공업도시 생강탱(Saint-Quentin)으로 올라왔다. 그 후 1912년부터 1914년 사이에 남부 리옹, 서부 산업항구 브레스트, 다시 북부 아미앵으로 간 것은 지방 곳곳이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웅변하고도 남았다. 이 개최지는 좌우 정치색이 아니라 공업지로서 선정되었다.<sup>33)</sup> 설령 선거 지

무위로 줄인다.

- 28) 듣기에 피로한 장시간 발언이 늘자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자는 안이 나왔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발언자 수는 한정적이었다. 3<sup>e</sup> *Congrès de Limoges*, 1906, p. 101.
- 29) 1890년 샤텔르로(Châtellerault) 같은 소도시에서도 대회가 열렸다. 이 같은 장소 순회는 사회주의자들뿐 아니라 파리, 마르세유, 리옹, 또 낭시와 포(Pau)를 돌아다닌 급진파의 대회 형식이기도 했다.
- 30) John M. Merriman, *The Red City. Limoges and the French Nineteenth Centu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 160-240.
- 31) 생테티엔은 정치와 노동 대회에 익숙해 있었다. *Compte rendu du sixième Congrès national tenu à Saint Étienne, du 25 au 31 septembre 1882, Parti ouvrier; Congrès de Saint-Étienne, février 1892, Fédération nationale des Bourses du travail Saint-Étienne*(Toulouse: imprimerie de G. Berthoumieu 1893).
- 32) 사회경제학의 대가 샤를 지드(Charles Gide)의 신문 『레망시파씨옹』(*L'Émancipation*) 이 님에서 발행되었다.
- 33) François Goguel, *Géographie des élections françaises sous la troisième et la quatrième république*(Presses de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1970), Carte 12, 13, 14, 15.

형으로는 서부는 우파, 동부는 좌파라 하더라도 각 연맹에는 가톨릭, 급진주의, 사회주의가 엉켜 있었다. 오히려 툴루즈, 리옹, 생강탱, 생테티엔에서 큰 대회를 열 수 있던 것은 1880년대부터 노동자 대회를 계속 치른 그 도시들의 정치 경험 덕분이었다. 대회 개최지는 1년 전에 지명되었기 때문에 축적된 인적, 지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자신들의 지방 신문에 사전 홍보를 하고 연맹 산하의 지역대회를 열어 공론을 모으고 대회 준비에 임했다.<sup>34)</sup> 노동자들은 이념적 분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에 발을 붙이고 살았고 연맹주의는 다름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동에 근거하는 사상이었다.<sup>35)</sup>

물론 모든 연맹이 거의 고르게 힘을 나눠 가진 것은 아니다. 100여년 전 혁명기에 평등을 원칙으로 각 도의 크기가 비슷하게 되었어도 연맹의 당원 수는 크게 차이나 연맹 사이에 차등이 컸다.<sup>36)</sup> 대회의 위임장과 참석 대의원 수에 따르면 연맹의 중요성은 노르와 파드칼레, 션, 론(le Rhône), 알리에(l'Allier), 오브(l'Aube), 마른(la Marne), 지롱드(la Gironde), 이제르(l'Isère), 가르(le Gard)의 순서이다.<sup>37)</sup> 모두 노동자당의 주요한 터전이었고 바이양파가 강한 세르(Cher) 연맹도 쟁쟁했다.<sup>38)</sup> 하지만 대회는 어느 지역의 연맹원이든 대등하게 대우하면서 출석 점검에 세심했다. 1911년 8차 생강탱 대회도 부활절 일요일인 4월 16일 개막 후 바로 출석 점검에 들어갔다.<sup>39)</sup> 대회 장소인 생

34) 이 시기 프랑스 사회주의 지방 신문은 고드메르에 의해 총 목록이 작성되었다. Marjorie Gaudemer, *Inventaire de la presse socialiste 1871-1914*(CODHOS éditions, 2006).

35) Pierre-Joseph Proudhon, *Du principe fédératif et de la nécessité de reconstituer le parti de la révolution*(Paris: E. Dentu, 1863).

36) 1790년에 반포된 도(département)의 수립은 19세기에 변치 않았으며 대체로 5,000-7,000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파리 같은 예외가 있고 그 이하, 이상이 있지만) 해당했다.

37) 3<sup>e</sup> Congrès de Limoges, 1906, pp. 5-9; 11<sup>e</sup> Congrès d'Amiens, 1914, pp. 7-12.

38) Claude Penneret, *Le socialisme dans le Cher 1851-1921*(La Charité: Éditions Delayance, 1982), pp. 67-138.

39) 프랑스 북단 피카르디 지방, 에느(Aisne)도에 속한 생강탱은 북부의 전형적인 직물 산업과 기계 산업 도시였다. 1892년 10월 2일부터 9일까지 혁명사회주의

캉탱이 속한 노르/파드칼레 지역에서 참석하기도 쉬웠겠지만 가장 많은 대의원을 보낸 연맹은 노르 연맹이고 59명이었다. 전체 참석 대의원은 1906년 3차 리모주 대회 272명으로부터, 1914년 아미앵 대회에서는 391명까지 늘게 된다.<sup>40)</sup> 집행국에서는 위임장과 대의원을 항상 꼼꼼히 챙겨 대회에 보고했고 그 때문에 1912년과 1913년에는 늘지 않는 당원의 문제가 당연히 대회의 근심거리였다.

연맹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고도 남았다. 우선 각급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연맹 휘하의 선거위원회였다. 파리에 있는 중앙당이라 할 것이 없었으며 파리에서 각 지방의 공천을 좌우하는 체제가 아니었다. 반면 당의 재정이 연맹의 기여에 달려 있었다. 각 연맹은 당원증(carte)의 수에 비례하여 당비를 납부했고 당은 이 비용으로 살림을 꾸려갔다. 의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도 없고 외부에서 보내는 후원금이란 없거나 거부하는 당이라 당은 당비 납부에 지극히 민감했다. 당의 첫째 수입원은 의회 의원의 개별 세비였지만<sup>41)</sup> 도 연맹으로부터 들어오는 당비가 이에 맞먹었다.<sup>42)</sup> 1911년 생캉탱 대회의 재정 보고에 따르면 1910년 총선 후 의원들의 몫이 훨씬 컸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더 벌려는 당은 아무리 작은 연맹이라도 예우해야 했다.

당은 선거를 통한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연맹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의 세력화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다.

노동자당(POSR)의 11차 전국대회를 개최한 이력에도 프랑스 노동자당의 거점 도시로서 정치 경험을 쌓았다.

- 40) 3<sup>e</sup> Congrès de Limoges, 1906, pp. 5-9. 다른 대회들에서도 그렇지만 위임장을 받은 대의원 전원이 대회에 참석할 여건은 아니었다.
- 41) 1906년 원내 의원 몇 명의 당비 납입이 연속 지연되자 이들을 제명해 버린 것은 원내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각인시켜 준다.
- 42) 8<sup>e</sup> Congrès de Saint-Quentin, 1911, pp. 35-36. 1910년 12월 31일자 당 예산 집행은 총수입이 (단위는 프랑) 133,849 90인데 연맹의 당원증과 인지가 44,161, 의회 의원들의 납입금이 66,380 (시의원은 930)이었다. 한편 사회당의 재정 구조는 2차 대전 이후에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당원에게 판매하는 인지의 등급이 32, 55, 100프랑으로 차이가 났을 뿐이다.

사회주의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과 분명 다른 면이 있다는 마르크 사단의 주장은 그 때문에 공감을 얻을 수 있다.<sup>43)</sup> 연맹이 힘을 발휘하는 계기는 당연히 선거 때였다.

### III. 선전·선거·연맹·의원

대통령 직접선거란 존재하지 않는 공화정 체제에서 당과 연맹의 지도력은 4년마다 치르는 하원(Chambre des députés) 선거에 집중되었다.<sup>44)</sup> 물론 지방선거도 치열했다. 각 계파의 사회주의자들은 1890년대의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자 통합하면 하원 세력을 더 늘릴 수 있으리라 자신감을 가졌다.<sup>45)</sup> 사실 1906년 5월 총선은 창당 이듬해여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에도 통합 전인 1902년 48석에 비해 의석이 대폭 늘었다.<sup>46)</sup> SFIO에서 이탈한 독립파 사회주의자 20석을 합치면 74석에 달했다.<sup>47)</sup> 그러면 당이 선거 전략을 세우고 후보자를 지원하는 데 당대회가 어떻게 관련되었을까. 창당 후 곧 “당의 두뇌는 당대회이고 당의 생명은 연맹”이라 한 사회당이었지만 중앙당의 조정이 없으니 리모주 대회에서 개탄하듯이 우선 수도 없는 후보자가 나섰다. 더구

43) Marc Sadoun, *De la démocratie française, Essai sur le socialisme*(Gallimard, 1993), pp. 60-61.

44) Raymond Huard, *Le suffrage universel en France 1848-1946*(Aubier, 1991), pp. 253-298.

45) 사회주의 의석은 1902년 총선에서 48석이 되어 1898년의 57석보다 후퇴했다. D. Anderson, *France 1870-1914*(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pp. 168, 170; 1906년과 1910년의 수치는 pp. 171-172.

46) 처음 선거 준비를 해야 했던 1905년 (10월 29일-11월 2일) 2차 대회는 아직 당 창설 몇 달 밖에 지나지 않아 내부 규약과 기구의 설치에 바빴다. 2<sup>e</sup> Congrès de Chalon-sur-Saône, 1905.

47) 독립파였던 브르통(J.-L. Breton), 밀랑, 비비아니(René Viviani), 클로비스 위그(Clovis Hugues) 등은 사회주의자로는 남았지만 통합당 SFIO에 들어오지 않았다. 개혁 강령의 포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통합당이 프랑스 밖의 세력에 연관되었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다. Albert Orry, *Les socialistes indépendants*(Marcel Rivière, 1911), pp. 73-82.

나 어려웠던 문제는 당 스스로 노동계급을 위한 이념 정당이라 믿지만 노동계급의 조직인 노동총연맹(CGТ)이 당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이었다.<sup>48)</sup> 리모주 대회는 11월로 예정되었고 CGТ의 당과 노조 분리 선언이 10월에 나오자 리모주의 대의원들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회 기간 내내 이 문제에 매달렸다.<sup>49)</sup> 당은 그 다음에도 CGТ의 투쟁론이 총파업(*grève générale*) 방식에 귀결된 까닭에 총파업론에 대한 지지와 비판으로 시간을 다 썼다. 당은 자금도 약소했지만 참신한 선거 전략을 기획할 만큼 대담하지도 않았다.<sup>50)</sup>

문제의 공화파 기율(*discipline républicaine*)도 걸림돌이어서 사회당다운 선거 전략은 절실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일찍 통합 전에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의 결과에 승복하고 이른바 공화파 기율에 따르는 약정을 두었다.<sup>51)</sup> 하지만 시·군·도의<sup>52)</sup> 지방선거마다 근소한 표차로 급진파와 경쟁하는 판에 사퇴를 달가워할 후보는 없었다.<sup>53)</sup> 이런

48) 영국 노동당 출범 전야 노동대표위원회(LRC)에는 각종 산업부문 노동자들이 직종별로 수천 명씩 가입하여, 1901년에 총 32만 4776명이었다. Henry Pelling, *The Origins of the Labour Party, 1880-1900*(Oxford: Clarendon Press, 1954). p. 244. 〈Appendix B. List of principal Trade Unions Affiliated to L.R.C., March 1901〉.

49) “노동계급 직능단체와 정치조직 사이의 관계”였지만 어쩔 수 없이 논의에 그쳤다. 3<sup>e</sup> *Congrès de Limoges*, 1906, pp. 88-109. 이용재, 『아미앵 현장과 혁명적 생디칼리즘』, 『서양사연구』 29집(2002. 2), 111-124쪽; Jacques Julliard, “La charte d’Amiens, cent ans après. Texte, contexte, interprétations”, *Mil neuf cent. Revue d’histoire intellectuelle*, n° 24(2006/1). pp. 5-40.

50)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는 모던한 정당은 민족주의자들, 왕당파, 가톨릭, 진보공화파(*republicains progressiste*) 같은 우파에서 출현했다. Jean-Marc Guislin, “La force électorale des droites septentrionales. Première partie: la Belle Époque”, *Revue du Nord*, n° 37(2007/2), p. 235.

51) 반(反)공화파에 대항하기 위해 2차 투표에서는 공화파 사이에 승자를 밀어준다는 공화파 기율은 1885년에서 1889년 불량제 운동 시기에 시작되어 우파에 맞서는 방식으로 줄곧 이어졌다. 사회당은 주로 급진파와 결합했다. Huard, *Le suffrage universel*, pp. 306-307.

52) Conseil municipal, Conseil d’arrondissement, Conseil départemental.

53) Georges Duveau, “Comment étudier la vie ouvrière: les méthodes d’investigation”, *Revue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Vol. 26, No. 1/2(1940-1947), p. 12.

저런 이유로 대회는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1909년 4월 제6차 생테티엔 대회는 이듬해 1910년의 총선에 대비하여 총선 전략을 미리 의제로 상정해 두었다. 선거 관련 의제는 간추려 세 가지였다. 총선 캠페인, 원내 사회주의 의원들의 선거 전략, 각 선거구의 후보 단일화를 결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문제는 4월 11일, 12일 이틀이나 미루어졌고 대회 초반은 당 계파 간의 해묵은 정쟁을 끊지 못했다. 대회는 루아르 연맹 장 콜리(Jean Colly)의 지적처럼<sup>54)</sup> 끝난 줄 알았던 밀랑(Alexandre Millerand) 입각의 분란을 재연하고 개인적이며 파당적인 반목을 노정했다.<sup>55)</sup>

어떻든 대회는 4월 13일에는 본 의제에 들어갔지만 선거는 놔두고 발언은 계속 농촌에 대한 사회주의 선전(propagande)으로 이어졌다.<sup>56)</sup> 이런 이탈은 이유가 있었다. 당원들은 부르주아에 대한 미움(haine) 아래 자본가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데 동의했어도<sup>57)</sup> 사회주의가 선거로 공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선거 승리라는 ‘허구’에 비판적인 경향은 젊은 신산업 노동자들이 많은 센 연맹이나 욘(Yonne) 연맹에서 더 심했다.<sup>58)</sup>

그러니 생테티엔에서 보듯 농촌에서 지지자를 더 얻었으면 하는

54) 6<sup>e</sup> Congrès de Saint-Étienne, 1909, p. 100.

55) 노서경, 「대표 개념에 따른 프랑스 사회주의의 갈등 구도 재검토 제3공화정 1893-1903」, 『서양사연구』 61집(2019. 11), 40-46쪽.

56) 물론 서양어 ‘Propagande’를 우리말 ‘선전’으로만 옮기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20세기 이전에도 ‘프로파간다’가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적 혹은 사회심리적 함의에 비해 ‘선전’은 일상적이거나 비정치적으로 들린다. 이 글에서는 아쉬워도 일단 선전으로 표기하려 한다. 1880년대부터 사회주의에서 이 말을 강력하게 차용한 것은, Fabrice d’Almeida, “Propagande, histoire d’un mot disgracié”, *Mots. Les langages du politique*, Chroniques 69(novembre 2002), pp. 140-141.

57) 6<sup>e</sup> Congrès de Saint-Étienne, 1909, p. 361.

58) Pierre-Louis Tournieroux, *La Fédération de la Seine du Parti socialiste-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de 1905 à 1914. Entre traditions d’extrême-gauche et réformisme modernisateur*, Mémoire de Master 2(Paris-Panthéon Sorbonne, 2017), pp. 64-87. (이 논문의 인쇄본을 직접 건네준 저자 피에르 루이 투르니에씨에게 사의를 표한다).

바람이 왜 잘못이었을까. 특히나 프랑스 농촌은 흔히 공업지와 인접하여 사회주의와 멀지 않았다. 게다가 한편 생각하면 노동총연맹은 산업 노동자들의 조직이었지 농촌 노동자들의 조직은 아니었다. 당은 농촌을 파고들 필요가 있었다. 오베르뉴 지역의 앵(Ain) 연맹을 대표한 루이 엘리에스(Louis Héliès)는 내년 총선의 발판은 소토지 농민에게 달렸다고 열변했다.<sup>59)</sup> 사실 농촌 문제는 그때 그때의 선거 전략으로만 동원된 사안이 아니다. 사회당의 뇌리에는 농촌이 박혀 있었다.<sup>60)</sup> 1910년 넘 대회, 1911년 생캥탱 대회가 연속해서 농촌 문제에 집중하듯 사회주의가 소토지 소유자에 더 역점을 둘 것인가, 농촌 노동자를 더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풀리지 않는 논란거리였다.<sup>61)</sup> 하지만 생테티엔에서 돋보인 것은 “우리가” 과연 농촌 사정을 잘 아느냐 하는 회의와 자책이었다. 그런 태도가 결여되었다면 좋은 선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농촌으로 더 들어가고 농민들에게 더 사회주의를 선전해야 한다는 데 대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방대한 사회주의 문건을 다룬 프레데릭 세페드가 선전은 미래의 사회주의 일꾼을 키우고 가르치는 수단이었다고 하듯이 당대회는 직감으로 이를 알았다.<sup>62)</sup>

59) 6<sup>e</sup> Congrès de Saint-Étienne, 1909, p. 314.

60) Adéodat Compère-Morel, *Les paysans et le socialisme à la Chambre: discours prononcé le 6 décembre 1909 à la Chambre des députés*(Librairie du Parti socialiste(SFIO), 1910); Madeleine Rebérioux, “Guesdisme et culture politique: recherches sur l’Encyclopédie socialiste de Compère-Morel”, in *Mélanges d’histoire sociale offerts à Jean Maitron*(Éditions ouvrières, 1976), pp. 211-238.

61) 6<sup>e</sup> Congrès de Saint-Étienne, 1909, pp. 200, 322. 체계적인 독일 사민당도, 2차 인터내셔널도 모두 농업 문제에 열중했어도 실제 대책은 서지 않았다. Benjamin Gilbert Gidding, “German and French socialists and the Agrarian Ques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4(1926), pp. 349-376. 1880년대 게드주의 노동자당이나 브루스파의 FTS(사회주의노동자연맹)나 농업과 농민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론을 내기는 힘들었다. 농민층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도록 세분되어있는 것이 우선 문제점이었다. 농촌에서 자란 조레스는 농민의 소유, 농촌 민주주의, 농촌 교육에 관해 끊임없이 정부와 사회의 주의를 환기했다. Damien Saley, *Jean Jaurès et les questions paysannes dans La Dépêche de Toulouse(1887-1914)*, mémoire de master 2(Université Lumière Lyon 2, 2012).

62) Frédéric Cépède, “La propagande socialiste 1905-1999”, in Jacques Girault (s.d.),

당이 애지중지하는 선전 매체는 무엇보다 당 신문이었다. 언제나 뾰뾰한 당 살림이니 약소할지라도 신문 판매가 큰 수입원이었지만 신문은 분명 그 이상이었다. 사회당은 통합 시에 게드파의 신문 『르 소시알리스트』(*Le Socialiste*)를 당의 제1 언론으로, 개혁파의 『뤼마니테』(*L'Humanité*)를 제2 언론으로 공식화했고<sup>63)</sup> 연맹이나 지부(Section)는 당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두 신문을 구독했다.<sup>64)</sup> 따라서 대회는 늘 지난 1년간 이 두 신문이 얼마나 팔렸으며 편집과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논의했다.<sup>65)</sup> 작은 세입을 쪼개서 사무국 직원들과 상근 대의원의 봉급을 지불하는 당 형편에 『르 소시알리스트』 발간은 비용이 들었다.<sup>66)</sup>

말할 것도 없이 선거를 잘 치르려면 신문으로는 미약했고 유권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힘찬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어야 했다. 그런 선전은 돈 없이 되지 않았다. 당은 순회비, 철도 예약, 임시 대의원 사례비를 지급했다.<sup>67)</sup> 그렇듯 지출이 나가는 선전은 연맹 내의 단위 지역

---

“L’implantation du socialisme en France au XX<sup>e</sup> siècle partis; réseaux; mobilisation” (Publication de la Sorbonne, 2001), p. 264.

- 63) 『르 소시알리스트』는 확실한 교리를 추구하는 게드주의 정치 문화를 반영하는 편이었다. 『뤼마니테』는 폭넓은 인문적 지면 구성을 보였으나 노동자들이 즐겨 읽기에는 너무 지적이라는 평도 받았다. Rebérioux, “Le Journal de Jaurès”, in Christian Delporte, Claude Penetier, Jean-François Sirinelli, et Serge Wolikow (s.d.), *L'Humanité de Jaurès à nos jours*(Nouveau monde éditions, 2004), pp. 19-27. 물론 『뤼마니테』는 1920년 12월 투르(Tours) 대회 이후 공산당(PCF)의 신문이 되었다.
- 64) 1909년 『르 소시알리스트』의 연간 구독료는 20프랑으로, 고가인 편이었다. 6<sup>e</sup> *Congrès de Saint-Étienne*, 1909, p. 125.
- 65) 1900년대의 프랑스는 매우 지적인 사회였지만 그 지적인 것은 흔히 노동자들에게 가닿지 않았다. 당 신문 『뤼마니테』는 이 현실을 타개해보려는 뜻을 소리 없이 지면에 반영했다. 신문이 마치 의회 속기록이 된 듯 의회의 발언으로 1면을 다 채웠고 외신을 많이 넣었고 문예물 고정란을 두었다.
- 66) 1914년 아미앵 대회에 오면 총지출 내역에 몇몇 유급 직원의 이름과 월 보수를 상팁(centimes) 단위까지 기입했다.
- 67) Cépède, “La SFIO des années 1905-1914: construire le parti”, *Cahiers Jaurès*, n° 187-188(2008/1-2), pp. 29-45.

에서만 떠맡지 않았다.<sup>68)</sup> 1914년 아미앵 대회에서도 보듯이, 각과 유권자 4, 5천명 선의 소선거구제 아래 한 표가 아쉬우니 당이나 현지나 실력 있는 의원들의 지원 유세를 바라보았다.<sup>69)</sup> 그런 총선전(propagande générale)은 전국위 산하의 상무위에서 주관했는데 상무위원 다섯 명은 전원 원내 의원이었다.<sup>70)</sup> 누구나 웅변이 뛰어나고 청중을 사로잡는 것은 아니니 몇몇 의원들이 선전위원으로 뛰어다녔다. 의원들의 선전 활동은 1906년 리모주 대회에서부터 1913년 브레스트 대회까지 참가자 이름, 순회한 도시명, 총계 선전일이 모두 보고되었다. 1913년 브레스트 대회에 따르면 1912년에 카생(Marcel Cachin) 16일<sup>71)</sup>, 롤드(Maxence Roldes) 23일, 초선인 카반(René Cabannes) 196일, 로디에(Henri Laudier) 79일, 레비(Gaston Lévy) 187일, 나디(Jules Nadi) 240일, 프레스만(Adrien Pressemane) 96일로 총계 ‘841’일을 기록했다.<sup>72)</sup> 에르베 역시 반군사주의 논설로 감옥에 갔다가 출옥한 즉시 전국 순회 선전에 합류했다. 이로써 당에 가입한 85개 연맹 중 67개 연맹이 현지에서 당 소속 의원들 및 대의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선거 중에서도 아슬아슬한 판이 지방선거였다. 1912년 시·도·군 선거의 선전(善戰)에는 농촌과 소도시 곳곳을 누빈 시의원, 하원의원, 당내 대의원들의 몫이 컸다.<sup>73)</sup> 이들은 지난 한 해에 모두 101번 지방을 순회했으며 240일을 다닌 나디의 경우 21개 도와 알제리, 튀니지까지 갔다. 카반, 랑디에(Landier),

68) 6<sup>e</sup> Congrès de Saint-Étienne, 1909, pp. 18-19.

69) 11<sup>e</sup> Congrès d'Amiens, 1914, pp. 278-285.

70) 총선전이란 어색하지만 générale이 총파업(grève générale)에 준하는 ‘총’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인다. 일반적인 선전활동이라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71) 보르도 법학교수를 지낸 마르셀 카생(1869-1958)은 게드주의 당을 거쳐 통합 당에 들어온 후 당의 선전을 책임졌다. 『퀴마니테』의 편집국장이었으며 1920년부터는 센 하원의원으로 출공 공산당을 지켰다.

72) 10<sup>e</sup> Congrès de Brest, 1913, pp. 24-25. 속기록에는 841일이다. 이 숫자만 더하면 837일이다. 다른 내용이 더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73) 1900년대에 유럽 여러 나라처럼 프랑스에서도 지정 사회주의가 정착되자 생강대 대회에서는 관련 당 강령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었다. Patrizia Dogliani, *Le socialisme municipal, en France et en Europe de la Commune à la Grande Guerre*(Paris: Arbre bleu, 2018), pp. 142-153.

레비, 나디, 프레스만의 선전 활동은 1914년 아미앵 대회에서도 재차 보고되었다.<sup>74)</sup> 카반은 오트비엔, 보클뤼즈, 루아르앵페리외르, 로제르, 캉탈, 피니스테르를 21번 총 195일 순회하면서 총 19개 연맹을 돌았다. 앙티드 부와예(Antide Boyer) 의원도 한 몫을 했다.<sup>75)</sup> 1908년 12월 보컬선거로 카브롤(Jules Cabrol), 뒤카루주(François Ducarouge), 로농(Rognon)이 초선 의원이 되자 전국위는 이들을 아베롱 연맹의 빌프랑슈, 손에루아르 연맹의 샤롤까지 보냈다.<sup>76)</sup> 1912년 2월 리옹 대회에서는 하루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유세를 벌이자는 의견이 채택되어 7월에 합동 대회를 열었다. 입법부 의원 30명이 한 날 유세하며 알린 것은 『뤼마니테』의 지면 크기를 키웠고 또 4면이던 것을 6면으로 증면했다는 신문 소식이었다. 그만큼 신문은 연맹과 연맹 사이, 당과 나라, 혹은 당과 해외를 이어주는 당의 보금자리였다. 정부 정책을 논설로 다루고 의회와

74) 게드주의 성향의 르네 카반(1879-1945)은 로에가론, 바스-피레네와 서부를 누빈 선전 대의원이었다. 셰르 지방의 도자기공, 유리병공으로 인쇄소를 운영한 앙리 로디에(1878-1943)는 셰르 연맹을 대표했다. 가스통 레비(1882-1944)는 사무직으로 출발하여 노조와 협동조합 일을 했고 웅변가의 자질이 우수했다. 그는 1944년 게슈타포와 민병대에 의해 사살된다. 나디(1872-1928)는 어렵게 초등교육을 마치고 글을 썼으며 인권협회에 가입했고 게드주의 당을 거쳐 드롬 연맹에서 활동했다. 마상스 롤드(1867-1958)는 철도 회사 사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후 발군의 웅변으로 당의 선전을 맡았으며 1914년에는 온 도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아드리앵 프레스만(1879-1929)은 리모주의 대표 산업인 도자기업 집안에서 태어나 정치 활동 내내 노동자들 사이에 남았고 농촌 문제 조사를 맡았다. 이상은 Dictionnaire Biographique Le Maitron <http://maitron-en-ligne.univ-paris1.fr/>에 의하며 각기 출처 주소를 밝히지는 않음(검색일 2020 01 15).

75) Touwoubé Wissi, “Antide Boyer, un ouvrier parlementaire et socialiste méconnu”, *Cahiers Jaurès*, n° 231-232(Janvier-Juin 2019), pp. 101-125.

76) 오뱅 출신의 카브롤(1871-1924)은 노동자당을 거쳐 사회당에 가담한 후 아베롱 연맹 대의원으로 당대회에 계속 참석했다. 알리에 연맹 대의원인 뒤카루주(1859-1913)는 도기공 출신으로 군의회, 도의회를 거쳐 하원에 진출했으며 손에루아르 연맹을 대표했다. 목재 화공 노동자인 로농(1869-1948)은 리옹의 노동상담소를 운영했으며 노동자당을 거쳐 사회당에서 론 연맹을 대표했다. 이상은 <http://maitron-en-ligne.univ-paris1.fr/>. 각기의 출처 주소를 밝히지는 않음(검색일 2020 01 15).

당대회는 물론 노조, 상호부조(mutuellisme) 운동을 한 눈에 보는 당 신문은 체제에 반감을 갖고 비판만 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증거 같았다.<sup>77)</sup>

이런 선전이 주효했는지 사회당 의석은 1910년에 102석, 1차 대전 전 1914년 5월에는 126석으로 늘었다. 득표수는 급진파보다 많은 총 174만 9천 표였다.<sup>78)</sup> 물론 전반적인 정세가 사회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기도 했다.<sup>79)</sup> 우선 반대 세력인 민족 우익의 강세가 두드러졌다.<sup>80)</sup> 공화파는 이에 맞서 일제히 개혁 공약을 쏟아냈지만 1906년 단독 집권한 급진 정부 하에서도 노동자들의 실망은 컸다.<sup>81)</sup> 그런 판에 전쟁의 위기는 점점 더 사회당의 의미를 살렸다. 유럽 군사주의와 식민지 분쟁을 억지하려는 평화 운동에 당이 매진하자 집산주의 소유관에는 머뭇거리던 이들도 평화의 기치에는 이끌렸다.<sup>82)</sup>

이 상황에서 1914년 1월에 열린 아미앵 대회는 5월 총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여건상 참석 대의원은 391명에 불과했지만 아미앵은 도합 2,971장의 위임장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선전 전략에 부심했다. 선전을 많이 다닌 로디에는 각 연맹이 집회의 성격을 충분히 조사하여 알려주기를 바랐다. 청중이 원하는 강연이 아니면 의미가

77) 『뤼마니테』의 해박한 국제 뉴스는 장 롱게에 크게 힘입었다. 롱게의 지적인 급진성에 대해서는, Prochasson, “Jean Longuet: intellectuel militant ou militant intellectuel?”, in *Jean Longuet, la conscience et l'action, études présentées par Gilles Candar*(Éditions de la R.P.P., 1988), pp. 13-24.

78) Pierre Lévêque, *Histoire des forces politiques en France 1880-1940*(Armand Colin, 1995), pp. 158-160.

79) 모든 급진파가 1902년에 창설된 급진당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급진당보다 급진파가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80) David Edmund Sumier, *Polarization in French Politics, 1909-1914*,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69), pp. 130-196.

81) 공화파는 사회문화적 혁신을 기하러 비례대표제, 여성 선거권, 투표 도의(Moralisation du vote) 같은 개혁 공약을 계속 제안했다. Huard, *Le suffrage universel en France*, pp. 129-219.

82) 신행선, 『제1차 세계대전 이전 파리지역 노동자들과 전쟁문제(1908-1914)』, 『서양사론』, Vol. 51, No.1(1996), 141-163쪽.

없었다.<sup>83)</sup> 푸아송(Poisson)은 또한 공개 집회는 한물간 분위기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선전을 개발하자고 제의했다. 여기저기서 부르주아 사회를 질타하는 젊은 층의 대두를 사회주의 진영도 깊이 느꼈고 새로운 방법론은 확실히 필요했다.<sup>84)</sup> 아미앵 대회 후반부에 특히 논의된 선거제 개혁 문제는 그러한 바람에서 나왔다.<sup>85)</sup>

하지만 이러한 선전과 당의 활동으로 당이 내부적으로 화목을 이루기는 어려웠다.<sup>86)</sup> 당은 어디까지나 연맹과 의회 의원들이 수평적으로 만나는 구성체였다.

#### IV. 의회 그룹에 대한 연맹의 우선권 쟁점

사실 애초부터 당과 의원들 사이는 꺾끄러웠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연원이 깊었다. 2차 인터내셔널(1889-1914) 출범 후 유럽 사회주의의 정치 지향은 확고했지만 프랑스 사회주의는 19세기의 온갖 사회사상과 운동이 흐르는 대동맥이었다.<sup>87)</sup> 아나키즘이 공식적으로 인터내셔널과 갈라지게 된 것이 일찍 1860년대에 인터내셔널을 정초한 아나키스트들의 의지를 부러뜨릴 수는 없었다. 1900년대 초 이제

83) *11<sup>e</sup> Congrès d'Amiens*, 1914, pp. 102-105, 109.

84) 이 시기의 사회주의 세대 문제를 다룬 중요한 연구로는 특히 라가르델(1874-1958)을 조명한 Christine Bouneau, *Hubert Lagardelle, un bourgeois révolutionnaire et son époque (1874-1958)*, Thèse(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1996), 초기 상황은 vol.1. 사회당원이면서 생디칼리스트였던 라가르델의 당에 대한 비판은 부르주아 사회 내 정당에 내재한 모순의 정곡을 찔렀다.

85) *11<sup>e</sup> Congrès d'Amiens*, 1914, pp. 270-285.

86) Jonathan Guemas, *Des barricades aux banquets. Métamorphoses du socialisme et des socialistes par les campagnes électorales dans le département du Rhône (1877-1914)*, mémoire de master 2(Ecole Normale Supérieure de Lyon, 2011).

87)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한 바쿠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대결을 논의할 필요는 없기에 생략한다. 2차 인터내셔널 런던 대회에서 벌어진 아나키스트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의 분란과 세 대결은 삽화를 넣은 전단으로도 돌았다. "Tract anonyme, Congrès International, Socialiste, Communiste, Anarchiste et Papiste à Londres", *Le Congrès de Londres devant la presse*, Index(Genève: Minkoff Reprints, 1980), pp. 366-372.

상황은 어지간히 변했어도 공격을 받은 그만큼 아나키즘은 우회하여 생디칼리즘에 물을 대며 물러서지 않았다.<sup>88)</sup> 따라서 통합당이 의회에서 부르주아 질서를 비판할 임무를 띤 것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명백히 했어도 알르만파(Allemanistes)를 비롯한 많은 연맹원들의 심정으로는 그것만이 사회주의의 전부는 아니었다.<sup>89)</sup> 더구나 의회라면 의심과 냉소를 보내는 반(反)의회주의는 우파, 좌파 가림 없는 지지를 받았다.<sup>90)</sup> 그러면 ‘의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떠냐’에 답은 분명했다. 당은 의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당헌 당규에 의회 의원들에 관한 조항은 멀찌감치 뒤로 갔다. II장. 그룹 지부 연맹으로 구성되는 당의 조직, III장. 당대회, IV장. 전국위를 다 정의한 후 V장에 가서야 의회의원들에 관한 규정이 내려졌는데 우선 35조에 명칭을 의회 사회주의그룹으로 했다.<sup>91)</sup> 이어서 36조는 모든 부르주아 정파와 뚜렷이 구별되고 연맹에 의해 지명된 당원인 의원만이 의회 사회주의그룹에 속한다고 원칙을 두었다. 의원들 개개인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당이 즉 ‘우리가’ 주시하고 감시하겠다는 경고성 칭호였다.<sup>92)</sup> 그것은 1906년 리모주 대회 이래 대회마다 표명된 당의 의지였다.<sup>93)</sup>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런 당헌의 기저에는 결국 권력관계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정치·사회학적으로 이 점은 분명하다. 권

88) 아나키즘 연구의 소생에 관해서는 David Hamelin, Jérôme Lamy, “L’anarchisme, cet autre socialisme”, *Actuel Marx*; n° 66(2019/2), pp. 11-25.

89) 서이자, 『1890년대 프랑스 알르만파의 의회정치 이탈과 노조연맹으로의 전환』, 『역사교육』, Vol. 90(2004), 242-246쪽.

90) Jean-Claude Caron, “Un mal français ? Quelques remarques sur la généalogie de l’antiparlementarisme”, *Parlement[s], Revue d’histoire politique*, n° HS 9(2013/3), pp. 23-34.

91) Groupe socialiste au Parlement. 줄여서는 의회 그룹으로 불렸다.

92) *Le Parti socialiste* par Paul Louis, pp. 121-129.

93) “Discipliner les députés, Une discipline aléatoire, Question d’argent: le parti et ses députés, in *L’Entreprise socialiste. Histoire documentaire du Parti socialiste, Tome 1, 1905-1920*, Textes réunis et présentés par V. Chambarlac, M. Dury, T. Hohl, J. Malois(Dijon: Éditions universitaires de Dijon, 2005), pp. 50-55.

력은 권력을 통제하려 한다.<sup>94)</sup>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도 않는다. 보통선거로 선출직에 대한 신망이 성장하는 추세 속에 오히려 이 같은 의회 제도는 결국 부르주아 사회의 산물이라는 자의식이 내재했을 수도 있다.<sup>95)</sup> 어쨌든 의원들에게 부과된 의무 사항은 분명했다. 38조에는 의원은 각자 매월 10프랑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37조에는 당 소속 의원 그룹은 의회보고서를 당대회 한 달 전에 미리 작성해서 전국위에 보고하여 대의원들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이 의회 의원들에게 이처럼 엄하니 연맹에 잘 보여야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당대회에 제출하는 의회그룹 보고서는 꼼꼼하게 작성되었다. 1911년 리옹 대회의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매주 열리는 원내 회의에 74명의 재석 의원 중 평균 53명이 출석했다.<sup>96)</sup> 그러면 3분의 2가 넘는데 이 정도의 결속력이면 (제3공화정 하원도 출석률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었으니) 양호한 성적이었을까, 아닐까. 당에서 지탄을 받을 지도 모르는 데 불출석한 이들은 무슨 배짱이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답을 알 길은 없다. 하여튼 보고서는 아주 착실했다. 당내 의원들이 의회에 발의한 안건을 전부 수록하고 상정되지 않은 법안도 의원 이름, 주제, 발의 이유를 낱낱이 기재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의원들의 투표 참가를 표시하고<sup>97)</sup> 안건을 하나하나 정리했으며 법안 보고는 제출된 법안, 채택된 법안, 그리고 제출된 보고서로 분류했다. 법안 발의에 사회주의자들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증거는 조레스의 『새로운 군대』(*L'Armée nouvelle*)로 증명된다. 1911년 파리에서 간행된 이 책의 원고는 그 전 해인 1910년에 13개 장 425쪽으로 의회에

94) Braud, *Sociologie politique*(Paris: L.G.D.E., 2000), 6<sup>e</sup> édition, pp. 23-26.

95) Angenot, *L'ennemi du peuple*.

96) 9<sup>e</sup> *Congres de Lyon*, 1911, pp. 40-77.

97) 아직 수동식으로 검표했지만 의회 의원들의 안건 발의 및 주제, 투표는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La France et son Parlement, Annuaire des électeurs et des parlementaires*, publié par E. Le Chartier(Paris: Aux Bureaux de "l'avenir économique", 1911), 특히 투표 공개는 pp. 593-740.

제출된 법안 초고였다.<sup>98)</sup> 이 경우는 다소 예외라 할지라도 의원들의 법안 연구와 작성은 여러 명의 보좌관이 엄호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각자 의회 도서관과 다른 파리 사고를 뒤지고 문예와 해외 정보를 동원하여 재량껏 수행하는 작업이었다. 의회보고서는 당규에 따라 대회 한 달 전에 전국위에 제출해 당 신문에 실렸다. 보고서에 망라되지 않는 사안이 없어 보일 정도로 내역은 충실했다. 사회주의 의원들은 『뤼마니테』와 다른 민주파 신문에 늘 예산 문제를 따지고 들었지만 의회 권능의 핵심이라 할 정부 예산 문제를 특히 세세히 연맹에 보고했다. 예산 개요와 함께 법무부, 건설부, 재무부, 조폐국, 교육부, 농업부, 내무부 그리고 대외 문제 예산을 각기 보고했고 해군, 재향군인, 국립인쇄소 예산도 빠트리지 않았다. 의사당에 가서 방청을 하지 않았어도 당대회 참석자들은 의회 보고서로 이 모든 사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연맹의 대의원들은 이로써 만족하지 않았다. 의회에 나가 있으면 그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할 뿐이었던 것 같다.

오히려 1906년 리모주 대회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의원들은 의회 의원들을 붙잡고 늘어졌다. 리모주에서는 “당은 연맹과 의원의 분업 체제로 간다. 의원들은 의회에 가서 대표하라”는 발언도 나왔다.<sup>99)</sup> 그렇다는 것은 의원들은 유권자들을 대표/대변하는 것이지만 당원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의회그룹의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하는 어느 대의원의 즉흥적 질문에 리옹 의원 드 프레상세(F. de Pressensé)가 그건 토의 안건이 아니라고 답변했어도 질의자인 위리(Uhry)는 굽히지 않았다. “나는 대회 성원의 자격으로 의회 그룹의 자세를 챙길 권리가 있다. 지나간 태도만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의회 성원들이 가능한 한 정확한 답변을 주기 바란다.”<sup>100)</sup> 대의원은 노조회의소와 노동자 결사들과 사

98) *Oeuvres de Jean Jaurès, tome 13, L'Armée nouvelle*, édition établie par Jean-Jacques Becker(Fayard, 2012), pp. 11-25.

99) 3<sup>e</sup> Congrès de Limoges, 1906, p. 76.

100) 10<sup>e</sup> Congrès de Brest, 1913, p. 223.

회연구그룹에서 위임장을 받은 만큼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막강하다는 자의식이 있었다. 게다가 혁명의 나라이지만 계급적 사회가 된 프랑스에서 부르주아에 대한 노동계급의 적대감은 희석되지 않았다. 1890년 샤텔르로 대회에서 브루스파로부터 인쇄공 노동자인 알르만 정파가 떨어져 나왔을 때에도 실천적 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저들이’ 어딘가 부르주아에 가까이 간다는 의심이 작용했다. 알르만파는 1899년 자피 대회에서도 그러한 경계심을 버리지 않았지만 통합당 대회들에서 이 분란이 계속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 공화정 치하에서 국가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난 것이다.<sup>101)</sup> 1908년 5월 파리 교외 드라베유빌뇌브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에게 총을 겨눈 것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급진파 정부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른바 부르주아 세계가 사회운동 혹은 사회주의를 냉대하거나 모른 척 했다면 일은 간단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정치권이냐 학계, 작가, 신문이 온통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노동세계를 중대하게 보고 실상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실제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정부였고 그 정책을 세워가는 정부의 통계와 조사, 입법의 정밀성은 외부에서 따라갈 수 없었다. 현실을 타개하려는 사회철학의 수립도 진지하고 냉철하기만 했다. 정치권이 노동의 현실에 눈감고 안이하다는 시각이 사회주의에서 팽배하다면 무리였다.<sup>102)</sup> 의회에서 알아야 하는 정책, 정치 논단, 사회운동을 신는 잡지인 『의정평론』(*Revue politique et parlementaire*)은 사회당 통합 전이나 후나 사회주의 소식을 세세히 실었다.<sup>103)</sup> 혁명

101) Rebérioux, “Les tendances hostiles à l’État dans la S.F.I.O.(1905-1914)”, *Le mouvement social*, 65(octobre-décembre 1968), pp. 26-31.

102) Christopher K. Ansell, *Schism and Solidarity in Social Movements. The Politics of Labor in the French Third Republic*(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특히 chapter 6, 7; François Ewald, *L’État providence*(Grasset, 1986), pp. 141-222, 433-521.

103) “Revue du mouvement socialiste (1)”, par J. Bourdeau, *Revue politique et parlementaire*, tome 47, n° 139(janvier 1906), pp. 148-160.

주의 노동자들이 경원하는 것보다는 ‘부르주아’ 정치의 벽은 상당히 단단하고 부드럽고 두터웠다.

그렇더라도 그 같은 부르주아의 노력에 마음이 동할 사회주의 연맹들이 아니었으며 의원들을 비판하는 입장은 센 연맹에서 두드러졌다.<sup>104)</sup> 물론 센 연맹은 단순하지 않아 온건, 보수, 급진 각 성향의 의원을 배출했다.<sup>105)</sup> 그러나 1900년대에도 여전히 파리 수공업 노동자들의 자존감이 흐르는 센 연맹은 다분히 독자적이었다.<sup>106)</sup> 기울어 있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조직이 노르/파드칼레 연맹이라면 센 연맹은 발군의 당원들을 각각 배출한 실력과 같았다.<sup>107)</sup> 신산업이 강세인 1900년대에 센 연맹의 확장세는 두드러졌고 더구나 1911-1913년에 전쟁 위기가 심각해지자 혁명적으로 되어 갔다.<sup>108)</sup> 그렇지 않아도 센 연맹 대의원은 이렇게도 큰 소리쳤다. “우리들 보고 의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찬성이든 반대든 의회의 법안 투표에 관해 말하지 말라고 한다. 당의 위엄(dignité)도 지키라고 한다. 의원들의 존엄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내가 마음 쓰는 것은 노동계급의 이해이다. 의원들의 존엄과 노동계급의 이해 사이에서 망설일 것은 없다.”<sup>109)</sup>

사실, 의원이라고 부르주아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sup>110)</sup> 1912년 74명의 당 소속 의원에는 변호사와 함께 노동자, 사무직이 섞여 있었

104) 위임장 수만큼 대의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대회에 나온 대의원들은 대표성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웠을 수도 있다. 아미앵 대회에서 센 연맹은 위임장 445개, 출석 대의원은 42명뿐이었다.

105) Jean-Marie Mayeur (s.d.), *Les parlementaires de la Seine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1), pp. 11-23, 195-202.

106) Rolande Trempe, “Deuxième partie 1871-1914”, in Claude Willard (s.d.), *La France ouvrière, Histoire de la classe ouvrière et du mouvement ouvrier français, Tome 1, Dès origines à 1920*(Éditions sociales, 1993), p. 258.

107) Édouard Dolléans, “Masses et militants: Introduction à une enquête”, *Revue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Vol. 28, No. 2(1950), pp. 192-199.

108) Tournieroux, *La fédération de la Seine*, p. 113.

109) 7<sup>e</sup> Congrès de Nîmes, 1910, pp. 242-243.

110) 의회 의원 전원이 페르라셰즈의 ‘피의 주간’ 추모에 참석했고 물론 라파르그 내외 장래에 단체로 애도를 표했다. 9<sup>e</sup> Congrès de Lyon, 1912, p. 40.

다.111) 지방의회에서 두드러졌지만 이미 1880년대 파리 시의원에 철물공, 건축공, 인쇄공, 화공 노동자들이 상당수였다. 그럼에도 일선 연맹원들의 눈에는 한 번 팔레부르봉 의사당에 들어가 앉으면 사람은 변한다고 보였던 것일까. 어쨌든 사회주의 의원그룹은 당대회에서 조금도 나서지 않았다. 1년에 30, 40 혹은 60프랑의 당비만 내는 소규모 연맹이 의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이 있었어도112) 의원들은 대체로 연맹에 대해 겸손했다. “의원들이 선전 활동이 부실해” 라고 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 그때 무척 바빴잖아?” 하는 속삭임도 들렸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이 무엇이든 오류(*fautes*)를 지적받으면 당대회에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폴루이는 당대회에 부여된 통제와 중재에 관한 최고권을 사법적 권한으로 표현했다.113) 사실 전국위는 당대회에 제재를 요청하고 대회는 동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며 새로운 조사를 명령할 수 있었다.114)

의원들은 그저 개혁에 그치는 당이 아니고 노동계급의 당이라는 당이념에 어떻게든 부응하려 의사당 안에서만 살고 있지 않았다. 선거 때가 아닌 평상시에 의회 밖 사정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노동계의 고충과 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들었다. 1910년 겨울부터는 그 해 10월 북부 철도 파업으로 철도원 해고 문제를 안고 있는 철도노조 대의원들을 만났다.115) 프랑스 노조 가운데 가장 노조원이 많고 연혁이 오래된 광부 전국 평의회 역시 광부 안전과 퇴직금고 법안에 대해 의원들

111) 9<sup>e</sup> *Congrès de Lyon*, 1912, p. 26. 기계공, 변호사, 사무원, 약사, 광부노동자, 포도농, 기업가, 직물노동자, 엔지니어, 교수, 제화공, 상인, 철도노동자, 원예가, 모자제작공, 의사, 금속노동자, 해양사무원, 도자기공, 인쇄공, 경작자, 선전가, 교사가 사회당 의원들의 직업이었다. 이에 관해 1910년 님 대회와 1912년 리옹 대회 보고가 비슷하다.

112) 11<sup>e</sup> *Congrès d'Amiens*, 1914, pp. 99-100.

113) *Le parti socialiste* par Paul Louis, p. 141.

114) 당헌 당규 VI장에 명시되었다.

115) Jean Colly, *L'action socialiste parlementaire 1910-1911 Jean Colly à la Chambre des députés: la politique briandiste, les cheminots, la CGT, Parti socialiste SFIO, Fédération (Seine)*(Éditeur Paris à la Librairie de l'“Humanité”, 1911).

과 숙의했으며 의원들 또한 이들 노동자에게 정중하게 질문하고 대등하게 대했다. 특히 1906년 아미앵 선언 이래 의원들의 노동자 파업 참관은 불가능했고 의원들 스스로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파업의 정보를 얻으려 하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사회당 의원들은 당연히 1907년 포도나무 병균으로 남부 포도농이 위기에 몰리는 것에 놀라며 포도경작자들의 실정을 캐물었다.<sup>116)</sup> 물론 선거구 관리를 의식해서였지만 그래도 의원들은 지역구의 노동자들과 직접 서신을 주고받았다. 1896년 5월 파리 생망데(Saint-Mandé) 연회가 보여주듯 하원의원들과 지방 소도시 시장들은 서로 환담하고 예우했다.<sup>117)</sup> 또한 프레상세에게서 보듯이 사회주의 의원들은 드레퓌스 사건으로 발족한 인권동맹(Ligue des droits de l'Homme)을 부르주아적이라고 물리치지도 않았다.

그렇던 것은 빈번하게 정부의 존립을 흔드는 강력한 의회주의(parlementarisme)의 울타리 안에 사회주의자들도 동석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여느 공화파나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 역시 의회 활동으로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자신감이 붙었다.<sup>118)</sup> 소속된 분과 소위에서 의정 실무에만 밝아진 것이 아니다. 1906년 에밀 콩브 정부 아래 교회와 국가 분리법이 통과된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협력에 빛났다. 사회당은 급진파 모니(E. Monis) 정권을 3개월 만에 끝내는 의회 표결에 동참하고 재정통 카이요(J. Caillot)의 정책에 대해서도 혹평을 했다. 하원은 생각보다 대외 정책도 장악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의원들 역시, 개인차는 있어도, 모로코와 튀니지 같은 복잡한 식민지 사안

116) Jean Sagnes, *Jean Jaurès et le Languedoc viticole*(Presses du Languedoc/ Max Chaleil Éditeur, 1988), pp. 58-71.

117) Sylvie Rémy, Chapitre IV. Les élections municipales de 1896 et le banquet de Saint-Mandé, in *Jean, Jules, Prosper et les autres*(Presses universitaires de Septentrion, 2011). <https://books.openedition.org/septentrion/45375>(검색일 2020 02 15).

118) 정치적 불안정은 제3공화정의 큰 정치적 특징이자 약점이었다. 위기를 부르는 내각과 의회 사이의 관계는 A. Soulier, *L'instabilité ministérielle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1871-1938)*(Librairie du Recueil Sirey, 1939), pp. 63-106.

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특히나 의회 전체에서 몇 해를 끌어도 결론이 나지 않던 비례대표제(RP)와 사회주의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 노동자 농민 퇴직법에 대해 의원들은 거의 전문가였다.<sup>119)</sup>

하지만 당은 정치적 경륜이 쌓여가도 의원들에 대한 통제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연맹의 불만이 많았던 투표 기율 문제도 크게 달라졌건만<sup>120)</sup> 1910년부터는 의원들의 상무위(CAP) 가입을 아예 막았다. 이러한 견제가 당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기 어려워도 분명 당을 고여 있지 않게는 했을 것이다. 기백이 있던 사회주의자라도 자칫 자만해지기 쉬운, 권력이 주는 정치적 해이(解弛)를 막았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리 치고받아도 당대회의 발언들은 알베르 토마의 분석처럼 근본적으로는 당의 정치 원리(doctrine)를 다듬는 과정이었다.<sup>121)</sup> 그렇다면 총연맹 같은 조직의 집중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연맹은 당의 방파제였다. ‘부르주아’ 질서에 저항하면서도 부르주아 정당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당의 현실이었다. 대회에서 드러난 연맹들의 질타와 비판은 그런 속에서도 의원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일종의 압력이었다. 그건 아마도 노동계급의 정당이고자 하는 당의 원칙과 의지를 믿어 자신들을 다그치려는 연맹원들의 자의식이기도 했다.

## V. 결어

대회장에는 물론 당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1909년

119) 노동자 농민 퇴직법은 실제로는 액수나 수령 연령이나 너무 빈약했다. 개혁과는 그래도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훗날을 기약하자는 입장이었고 혁명과는 그런 법은 필요없다고 거부했다.

120) 1911년도 하원 회기 중 의결된 89건의 법안에 2, 3명씩 이탈표가 있었을 뿐이다. 9<sup>e</sup> *Congrès de Lyon*, 1912, pp. 40-77; 11<sup>e</sup> *Congrès d'Amiens*, 1914, p. 103.

121) Thomas, “Au retour de Saint-Quentin: Le Parti socialiste et sa doctrine Parti socialiste SFIO (Congrès national, 1911. 8, Saint-Quentin)”, *La Revue socialiste*, T. 53, n° 317(mai 1911).

생테티엔 대회에서 오토비엔 연맹의 대의원 프레스만은 이렇게 질책했다. “이렇게들 하지 맙시다. 우리가 모이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피곤하게 대회에 온 것은 매번 개인적인 경쟁심, 파당 싸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 여러분은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우리가 벌이는 이 모양새를 보면 우리 당에 힘을 실어 주고 신뢰를 보내리라 보십니까?”<sup>122)</sup> 말할 것도 없이 당의 성장에는 지지자들이 보내는 신뢰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더 심오하다. 사회주의가 대단히 이론적인 형상을 하고 있었어도 정치에 긴요한 것은 그러한 정서였다. 정치학자 필립 브로는 『정치사회학』에서 그 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이때 정서란 감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움츠러들지 않는 자기성찰이다.<sup>123)</sup>

물론 자기성찰은 혼란을 야기한다. 사실 당은 연맹과 전국위의 권위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 다닌 것도 같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결정사안이든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고 집행하지 않으려 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국위는 연맹의 자유를 담보하면서도 혼란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 절제된 자유는 당대회라는 중대한 정치공간을 연맹들에게 충분히 열어 놓았다. 그래서 대의원들은 서로 실망하고 등 돌리고 자책했어도 충족감도 가질 수 있었다. 게드, 바이양, 조레스 같은 대립적인 지도자들이 허물없이 대회장에 섞여 앉아 다른 대의원들과 허물없이 질의 응답하는 것은 정치의 매력인 충만감이 되어 연맹들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했다.<sup>124)</sup>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낸 것은 말의 힘, 다시 말해 말을 준비하고 고안하는 개개인의 사색, 감성, 관찰의 힘이었다.<sup>125)</sup>

122) 6<sup>e</sup> Congrès de Saint-Etienne, 1909, p. 101.

123) Braud, *L'émotion en politique*, pp. 9, 145-147.

124) 감정이 정치에서 갖는 자리는 광범하게 연구되고 있다. Alain Faure et Emmanuel Négrier (s.d.), *La politique à l'épreuve des émotions*(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7).

125) 프랑스 사회주의 안에 숨쉬고 있던 개인주의의 문제는 Philippe Chaniel, *La Délicate essence du socialisme: L'Association, l'Individu et la République*(Le Bord de l'eau, 2009), pp. 192-205.

그런데 그 말의 주인공들은 지식인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사회와 유리된 중상층도 아니었다. 연맹의 당원들은 규정상 일선 노동자들이었으며 소득이나 소유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대회에서 노동과 사회가 정치와 함께 돌아가고 있었다. (말의 허비가 심하게 보이더라도) 대회의 말들은 이 대회장에 나오지 못한 자기 마을, 자기 작업장의 농민,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는 의지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의지에 그치지 않고 정치를 사회와 묶어 정치의 폭을 넓히려는 당의 신념과 결부되었다. 의회와 정부 예산, 노동 문제를 따로 떼어내지 않고 켜켜이 다루는 『뤼마니테』의 지면 구성은 당의 그러한 정치철학을 반영했다. 그 점이 혼란스러워도 명백히 드러나는 당대회는 세페드의 평가처럼 바로 당의 선전이었다.<sup>126)</sup>

그렇다면 다소 비약일지라도 우리는 아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가정이 어떻게 성립 가능할 것인가를 과제로 남기고 싶다. 그것은 곧 당대회는 사회주의의 존재 이유가 경제와 착취와 물질에 대한 비판에만 있지 않고 자유와 자율, 자치를 누리려는 정치적 시험장이었음을 보여주었으리라는 문제이다.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자문연구위원)

<투고일자: 2020. 1. 20, 심사일자: 2020. 2. 5, 게재확정일자: 2020. 2. 5>

▶ **주제어** : 프랑스 사회당(SFIO), 전국당대회(1905-1914)(National Congress of the French Socialist Party(1905-1914)), 연맹(Federation), 당 선전(Party Propaganda), 의회 사회주의그룹(Parliamentary Socialist Group)

126) Cépède, “La propagande socialiste 1905-1999”, pp. 271-276.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 - 사회당대회 속기록

3<sup>e</sup> Congrès national du Parti tenu à Limoges, 1<sup>er</sup>-4 novembre 1906.

6<sup>e</sup> Congrès national du Parti tenu à Saint-Etienne, 11-14 avril 1909.

7<sup>e</sup> Congrès national du Parti tenu à Nîmes, 6-9 février 1910.

8<sup>e</sup> Congrès national du Parti tenu à Saint-Quentin, 16-19 avril 1911.

9<sup>e</sup> Congrès national du Parti tenu à Lyon, 18-21 février 1912.

11<sup>e</sup> Congrès national du Parti tenu à Amiens, 25-28 janvier 1914.

## - 신문 잡지

*L'Humanité* 1904-1914 (당대회 시기)

*La Revue politique et parlementaire* (당대회 시기)

*La Revue socialiste* (당대회 시기)

## - 당대 문헌

Blum, Léon, *Les Congrès ouvriers et socialistes français*, t. I. 1876-1895, t. II. 1886-1900(Bellois, 1901).

Compère-Morel, Adéodat, *Les paysans et le socialisme à la Chambre*: discours prononcé le 6 décembre 1909 à la Chambre des députés(Librairie du Parti socialiste(SFIO), 1910).

Jacques, Léon, *Les Partis politiques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Thèse pour le doctorat(Librairie Recueil Sirey, 1912).

Proudhon, Pierre-Joseph, *Du principe fédératif et de la nécessité de reconstituer le parti de la révolution*(Paris: E. Dentu, 1863).

Seilhac, Léon de, *Les Congrès Ouvriers en France 1876-189*, "Bibliothèque du Musée social"(Armand Colin, 1899).

Testut, Oscar, *Le livre bleu de l'Internationale*(E. Lachaud, 1871).

## 2. 연구문헌

- Angenot, Marc, *L'ennemi du peuple: représentation du bourgeois dans le discours socialiste, 1830-1917*(Montréal: McGill, Discours social/ Social discourse, 2001).
- Ansell, Christopher K., *Schism and Solidarity in Social Movements. The Politics of Labor in the French Third Republic*(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Bouneau, Christine, *Hubert Lagardelle, un bourgeois révolutionnaire et son époque (1874-1958)*, Thèse(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1996).
- Braud, Philippe, *L'émotion en politique: problèmes d'analyse*(Presses de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1996).
- Brécy, Robert, *Le mouvement syndical en France 1871-1921, essai bibliographique* (Ecole des Hautes Études, 1963; Gif-sur-Yvette: Éditions du Signe, 1982). *Cahiers Jaurès*, N° 187-188(janvier-juin 2008), Les débuts de la SFIO.
- Cépède, Frédéric, “La propagande socialiste 1905-1999”, in Jacques Girault (s.d.), *L'implantation du socialisme en France au XX<sup>e</sup> siècle partis; réseaux; mobilisation*(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1).
- Chanial, Philippe, *La Délicate Essence du Socialisme: L'Association, l'Individu et la République*(Le Bord de l'eau, 2009).
- Charpentier, Armand, *Le Parti radical et radical-socialiste à travers ses congrès: 1901-1911*(Paris: V. Giard et E. Brière, 1913).
- Faure, Alain et Négrier, Emmanuel (s.d.), *La politique à l'épreuve des émotions*(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7).
- Gaudemer, Marjorie, *Inventaire de la presse socialiste 1871-1914*(CODHOS éditions, 2006).
- Tournieroux, Pierre-Louis, *La Fédération de la Seine du Parti socialiste-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de 1905 à 1914. Entre traditions d'extrême-gauche et réformisme modernisateur*, Mémoire de Master 2(Paris-Panthéon Sorbonne, 2017).

## 〈Résumé〉

**Le congrès annuel du parti socialiste en France(1905-1914): au sujet de la Fédération comme base d'étude**

Seo-Kyung ROE

Le parti socialiste unifié nommé aussi SFIO(la 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a publié le compte rendu sténographique de son congrès national tenu chaque année à partir de sa fondation en 1905. Et la constitution du parti a déclaré que c'est le congrès national qui dirige le parti. Avec le concept de fédération qui reclame l'autonomie contre l'autorité centrale dans la vie du parti, nous souhaitons poser trois questions sur la période fondatrice: la réalité de la fédération liée au parti, le processus par lequel le parti et les fédérations mènent la propagande générale surtout pour les élections, et finalement les relations du conflit entre les fédérations composées, en principe, d'ouvriers et d'éléments du peuple, et les élus socialistes chargés de se confronter avec la classe bourgeoise au Parlement. Malgré des faiblesses, les délégués aux congrès ont voulu enraciner l'esprit d'autonomie et sa puissance en milieu politique et ils ont ainsi agi pour une meilleure construction démocratique et socialiste.

## 〈Abstract〉

**Annual national Congress of the French Socialist Party(1905-1914): Concerning Federation as a Study Base**

Seo-Kyung ROE

The unified French Socialist Party, also known as SFIO(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has published the stenographic recordings of its annual national party congress since its foundation in 1905. And the party constitution clearly stated that it is national congress who directs the party. Limiting our study to the founding ten years before the First World War, we concerned the concept of federation which claimed individual autonomy against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party. Three factors seemed important: the reality of federation for the party, how the federations planned their propaganda activity, especially for the seasons of election, and finally the contested relations between the federations mainly composed of working people and the elected socialist party group in Parliament. In spite of the many problems, the congress delegates eagerly wanted to plant the autonomous spirit and power for a fertile political environment apt to its democratic and socialist construction.